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국내 최초 어린이식 전문 브랜드 '푸드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초록마을 MD들이 초록베베 상품을 소개하고있다. /초록마을

“마음 놓고 먹이세요”... 식품업계, 건강한 영유아식 꽃혔다

감소하는 출산율에도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2015년 680억원에서 2020년 1671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33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리성을 선호하는 맛벌이 부부가 늘어난 데다, 건강한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하림은 최근 '어린이HMR(가정간편식)' 브랜드 '푸드버디'를 론칭하고 즉석밥 3종과 라면 4종, 국물요리·볶음밥·튀김요리 5종, 핫도그 5종 등 신제품 24종을 출시했다. 저출산 기조이지만, 영유아식 시장 등 어린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림 측은 “어린이식과 유아식은 영양에만 초점을 맞춰 맛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당시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김홍국 회장 역시 “못 먹게 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제대로 먹이세요”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푸드버디 제품에는 합성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생채소, 한우, 생계육과 생돈육을 비롯해 고형 미역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했다.

전문 영양사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맞춘 영양학적 제품 설계도 강화했으며,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재료의 식감과 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반영했다.

출산율 저조해도 영유아식 시장 ↑ 2025년엔 3300억 규모 성장 전망
편리성·건강, 부모 욕구 반영 분석
영양·식감·크기 등 연구결과 반영

하림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식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발 등을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편 어린이식 제품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은 영유아 식품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를 6월 론칭하고 70여종 제품을 냈다. 이달에는 볶음밥을 출시하며 HMR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초록베베 볶음밥은 한우·새우·닭안

심 등 3종으로 선보이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항생제 한우, 무인산염 백새우, 무항생제 닭안심을 주재료로 국내산 유기농 쌀과 당근, 홍파프리카, 양파 등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채소 7가지를 사용했다.

볶음밥 1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270mg, 새우볶음밥은 300mg으로 유아(3~5세)의 한 끼 나트륨 충분 섭취량(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인 약 330mg 대비 각각 82%, 91% 수준이다.

맛벌이 부부의 바쁜 육아 환경을 고려한 편리한 포장 방식까지 더했다. 끼니 때마다 남기지 않도록 아이 한 끼 식사에 적합한 180g씩 소포장하고, 손으로 뜯기 편해 빠른 식사 준비를 돕는 이 지켓 포장 방식을 적용했다.

이영훈 초록마을 가공식품기획 총괄은 “초록베베 론칭 초기에는 이유식 재료 중심으로 상품군을 빠르게 늘렸다면 지금은 초록마을의 경쟁력인 PB, 그 중 가공식에 집중해 기획·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바쁜 부모들을 위해 간편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조안심’ 식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초록마을은 초록베베 론칭 후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기준 영유아 상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의 숫자는 초록베베 론칭 전인 6월보다 30% 늘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상품 관련 월매출은 35% 증가했다.

베이비본죽의 운영사 순수본은 이유식을 강화하기 위해 월령을 세분화했고,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전략으로 바뀐 사업을 운영중이다.

영유아식 성장세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헬시플레이어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림 어린이 가정간편식 ‘푸드버디’ 초록마을 ‘초록베베’ 70여종 선포
베이비본죽 이유식 월령 ‘세분화’
매일유업 국내 최초 락토프리 적용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가 적은 어린이 전용 치킨이나 라면, 고혈압을 관리하느라 나트륨이 낮은 국물과 볶음밥, 유당불내증에도 먹을 수 있는 유제품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식을 일부러 챙겨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일유업의 유기농 우유 브랜드 ‘상하목장’은 대표적인 아이간식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른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른간식으로도 입소문을 탔다.

상하목장은 락토프리 제품 중에서도 유기농 및 프리미엄 우유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해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를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유기농 우유에 유당분해공법을 적용한 우유로 유기농 전용목장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며, 매일유업의 락토프리(LF) 공법으로 유제품 섭취 시 배 아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유의 유당 성분을 제거했다.

전지분유가 함유된 아이 간식 오리온의 ‘베베’는 소비자원에 힘입어 2019년, ‘베베’라는 이름으로 단종된 지 7년 만에 재출시됐다. 베베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입 안에서 사르르 퍼지는 달달한 분유 맛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좋아하는 추억의 과자다. 출시 당시부터 성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베베는 해썬(HACCP) 인증을 받은 과자로 성인과 아이가 모두 부담 없이 먹기에 좋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양성분이 좋은 어린이식을 찾는 성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염·저당식을 원하는 성인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지만 맛은 없을 것이라는 편견도 깨부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상생협력활동을 대기업(모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9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21.(목)

▶ 신청대상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내용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상생협력활동 평가 수행
매칭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상생협력활동 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지원
※ 매칭분담비율: ▲사외·지역중소기업 70:30 모기업 30 ▲사내 협력업체 50:50

▶ 지원한도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활동과제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혜택 우수기업 선정시

-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 보조금) 우대 등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E-mail,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 강원,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동부 TEL: 02-6711-2965	인천광역본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중부, 고양파주 TEL: 032-510-0608
부산광역본부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TEL: 051-520-053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충남, 충북, 충북북부 TEL: 042-620-5615
광주광역본부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TEL: 062-949-8745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TEL: 031-259-7172
대구광역본부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TEL: 053-609-0524	※ 담당자, E-mail은 상기 연락처로 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Tel. 052-703-0631, 0633

※ 신청서 양식과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